석전 스님 기리는 문학상 제정된다

불교문예, 올해 '제1회 석전문학상' 시행

근대 불교 지도자이였던 석전 스님〈사진〉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한 문학상이 제정된다.

불교계 문학 계간지인 〈불교문예〉는 최근 지면을 통해 '제1회 석전문학상(가칭)'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불교문예〉 편집위원 등을 중심으로 석전문학상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심사와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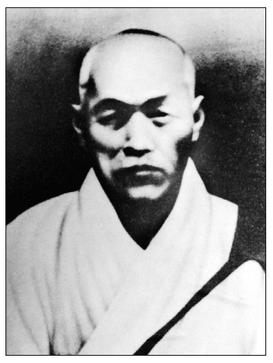
석전 문학상은 기존 불교 문단에서 중진 문인들의 작품을 선발하는 성격으로 운영되며 심사 분야는 시 · 시조와 소설 · 평론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시, 시조, 소설, 평론 등 4가지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교문예〉 발행인 혜관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석전 스님은 근대 불교 지도자이면서 대강백이셨고 뛰어난 시조 문인이었다"면서 "신석정, 서정주, 정인보, 최남선, 이광수 등 당대 최고 문인들이 모두 석전 스님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스님의 문학세계를 다시 조명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선양할 수 있는 문학상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석전 스님은 3000여 수가 넘는 한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육당 최남선이 편역한 〈석전시초(石顚詩抄)〉에 남은 420수가 전해지고 있다.

석전 스님의 문인, 지식인으로 풍모는 그를 모셨던 제자들의 회고에서도 잘 나타난다. 육당 최남선은 〈석전시초〉에서 "석전 스님을 만나면, 내전이고 외전이고 도대체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박식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는데, 석전 스님에게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위당 정인보도 〈석전상인소전(小傳)〉을 통해 "스님과 함께 길을 갈라치면 한국 땅 어디를 가나 그는 모르는 것이 없다. 사농공상(士農工商) 무엇에 관한 문제를 꺼내든지 화제는 고갈될 줄 몰랐다"고 술회했다.

서울중앙고보와 고창고보에서 퇴학당하고 방황하던 자신을 중앙불교전문학교 제



시조시인으로 석전 스님 기려
올 하반기 시상식 추진 계획
시 · 시조, 소설 · 평론 나눠 선정
석전 스님 문학세계 연구 추진
불교 문단 활성화 기대 높아

자로 받아들여준 석전 스님에 대해 미당 서정주는 "나의 뼈와 살을 데워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평생 존경의 마음으로 모셨다.

석전 문학상 제정이 추진되면서 문학상 준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당대 문인이자 지식인이었던 석전 스님의 문학세계를 연구 · 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혜관 스님은 "석전 스님의 문중을 중심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불교계 최고 수준의 문학상으로 발돋움시키고 이를 통해 석전 스님의 문학세계에 대한 전문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문학상 상금도 불교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도 충실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전 문학상이 추진됨에 따라 불교 문단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교 관련 문학상은 현대불교문학상, 유심 문학상 등이 대표적이다.

혜관 스님은 "불교 시인, 소설가 데뷔해도 창작 환경이 척박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진 문인들이 적지 않다"면서 "석전 문학상 제정을 계기로 중진 문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문인이면서 지식인이었던 석전 스님을 선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한해 성과 '한눈에'

〈2014 포교현황〉 발간… 사업 · 통계자료 담겨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 및 활동을 담은 '2014년 포교현황(이하 포교현황 · 사진)'을 발간했다.

〈2014년 포교현황〉에는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포교원 사업과 통계자료, 포교종책과 관련한 연구자료 등이 담겨있다.

포교현황에는 2014년을 중심으로 신도품계, 전문교육, 포교사단, 전법도량, 전법단, 어린이 청소년 지도사 등에 대한 지역별, 활동영역별 통계자료가 실렸다. 특히 포교종책연찬회 내용을 통해 제주 및 충남내포지역 포교 환경과 통계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도품계 현황의 경우 2011년 7월 신도품계시행령을 공포한 이래 2014년 11월 현재 2만9068명이 신도로 새로 등록하고 발심 품계를 받았으며 7924명이 행도 품계를 받았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단인가 불교대학은 125곳으로 파악됐다. 포교사의 숫자는 남 2210명, 여 2251명 총 44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포교사는 승 · 재가를 모두 포함해 2014년 현재 513명이 배출됐으며, 2013년부터 화운사 조계종 국제불교학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양성되면서 비구니 국제포교사가 소폭 늘어났다. 어린이청소년지도사 및 파라미타 지도사는 694명으로 집계됐다. 포교원은 "2008~2010년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배출을 강화했다"며 "특히 2008년 불교청소년지도사를 신설



하면서 자격 배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009년 48곳으로 시작한 전법중심도량은 2014년 현재 121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포교현황에는 2014년 55~60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수록됐다. 포교원은 '34대 집행부 지역중심 종책 기조와 포교종책 과제' '명상포교의 현황과 전망' '충남 내포지역의 포교현황과 실천 과제' '제주지역 전법 실현을 위한 교구와 사찰의 역할' '감성과 감동의 시대, 문화포교를 말한다' '군 포교의 지향과 대학생 포교와의 연계성' 등을 주제로 종책 연찬회를 열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편찬사에서 "〈2014년 포교현황〉을 발간함으로써 포교원 사업과 통계 · 연구자료를 남겨 그 기록들을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포교활동 및 사업계획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며 "이 책의 내용이 포교의 지평을 넓히고 계시는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포교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남북 불교도 협력 연대 강화하자"

민추본-조불련, 새해 서신 왕래

광복 70년을 맞이해 남북 불교도가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며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공고히 다져가자고 뜻을 모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가 새해인사를 담은 서신을 주고 받은 것이다.

민추본은 12월 30일 민추본 총재 자승 스님 명의로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에게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불교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남북불교 대표자간 만남'을 제의했다.

같은 날 오전 북에서는 새해인사 서신을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 명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전달했다. 다만 만남 제의에 대한 답은 언급되지 않았다.

자승 스님은 서신에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 새해에 남과 북이 서로 합심하여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수린 위원장 역시 답신에서 "조국해방 70돌을 맞아 종단 모든 분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낸다"며 "새해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리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배현진 기자

C&M 노사 합의 뒤엔 불교계 도움이

구랍 30일 재고용 합의 결실
170여일 동안 3대종교 함께
종교인들 본사 항의 방문도
해고 노동자 "많은 위안 얻어"

"많이 힘이 되죠. 6개월간 노숙농성을 하고 30m 전광판 위에서 40일 넘게 밧줄을 매달고 있어도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치지 말라고 종교계에서 저희들을 격려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12월 29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앞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천주교, 기독교와 함께 '씨앤앰(C&M)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합동기도회'를 개최한 날, 이를 지켜보던 씨앤앰 노동자 채윤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계를 필두로 시민단체에서 힘을 보태준 덕분에 170여일에 이르는 씨앤앰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구랍 30일 결실을 맺게 됐다. 이로써 해고노동자 109명 중 이직 · 전직을 제외한 83명 전원은 신설법인을 통해 씨앤앰에 재고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 원인이 됐던 계약해지건 역시 향후 매각 시에도 협력업체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용안정


조계종 노동위 수석부위원장 덕본 스님이 구랍 29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4대 종교인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 보장받게 됐다.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 해고에 맞서 단식을 불사하며 지난 7월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노동위가 "씨앤앰 대주주인 투자회사 MBK가 기업 이윤만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 시킨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3대 종교 노동 · 인권위와 함께 매주 종교별로 기도, 법회, 3보 일배 등을 진행해온 것은 지난해 11월 4일. 12월 24일에는 전광판위에서 고공농성중인 두 해고 노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도철 스님과 양한웅 노동위 집행위원장이 크레인에 오르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요청이었다.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다. 지치고 힘들 때 격려해주는 종교인들에게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위안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씨앤앰 사태 해결에는 3대 종교가 힘을 모아 장기간 활동함으로써 결집된 여론으로 인해 회사 측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종교계 인사들은 MBK본사 항의 방문을 감행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아이스버킷? 겨울에는 '아이연탄맨'!

아름다운동행, 연탄 릴레이 기부 캠페인 시작

릴레이 기부의 유행을 이끌었던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이어 이번 겨울에는 '연탄 릴레이 기부' 움직임이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 연탄 지원 캠페인 '아이연탄맨' 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불황 여파로 연탄 기부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연탄을 지원받아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을 덜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내는 슈퍼히어로물 아이언맨과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아이연탄맨'은 손에서 빔이 나오는 아이언맨에 착안, 자신의 손바닥에 연탄 모양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며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2명에게 사진을 전송하면 지목받은 이들은 24시간 내에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후 5장의 연탄(3천원)을 기부하면 된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주변인들에게 이를 추천했던 아이스버킷챌린지와 같은 방식이다.

아름다운동행 직원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돼 현재 조계종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행이 되고 있다. 조만간 스님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참여는 1월 31일까지며 기부된 연탄은 서울의 달동네 중 한 곳인 홍제동 개미마을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측은 "연탄 기부가 줄어 다음달이면 당장 연탄 재고가 바닥난다고 들었다"며 "4월까지도 연탄이 꾸준히 필요하므로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RS : 060-700-0011(1통 3천원), 계좌 : 외환은행 630-008535-598(아름다운동행)

배현진 기자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깨서 이런 일이…?"

말씀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즉신성불을 주시는
신비의 칠여래부처님 부산자비선원에 나투시다!

미래가 궁금하고 답답하신 불자님들은 자비선원으로 오셔서
칠여래부처님을 친견하시고, 영험을 증득하십시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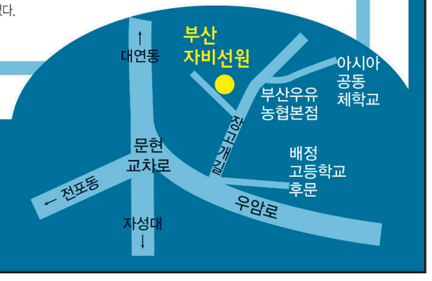

다보여래부처님 보승여래부처님 묘색신여래부처님 광박신여래부처님 이포외여래부처님 아미타여래부처님 감로왕여래부처님

• 다보여래부처님 : 입시 · 시험 · 고시응시생, 재판계류 해결
• 보승여래부처님 : 행복, 재물 축적, 백만장자의 지름길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결혼인연, 득남 발원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 · 전월세, 계약체결 성사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 · 공황장애 · 우울증 · 빙의 등 병고해탈
• 아미타여래부처님 : 극락왕생, 48가지 소원성취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 · 제조 · 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칠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홀연히 나타나신 큰 노스님이 주장자를 쥐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써라!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가던 중 계곡 입구에서 아주 볼품없는 못생기고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에 싣고 와서 황등석재공장에 맡겼다. 석장이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더니 스님은 "네모든 세모든 타원형이든 사장님이 알아서 다듬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둥근 돌이 다듬어져 왔다. 그 돌을 신중단에 올려 놓고 다게물을 올리기 위해 옮기려 하자 움직이지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지종을 말씀드려 큰스님 역시 들려고 하자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시며 잠시 좌정을 하셨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 돌이 범상치 않은 돌인가 보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셨다. "왜 이렇게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시면서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으시며 네 분의 부처님의 응답을 받고 오여래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열심히 정진하던 중, 두 분의 부처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어 마침내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발돋움했다.

큰스님은 "원래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일곱 분의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보승여래부처님, 셋째 묘색신여래부처님, 넷째 광박신여래부처님, 다섯째 이포외여래부처님, 여섯째 아미타여래부처님, 일곱째 감로왕여래부처님이야."하시며 "이 모두를 칠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단다"라고 말씀하셨다.



NAVER 부산자비선원 검색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친견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